

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현장 직무 역량 우수상

김○연(영어영문학과)

Job Plus (잡+) 모의면접

내 용

1. (프로그램명)에 신청하게 된 동기

처음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첨삭,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언뜻 팜플릿 등을 보면서 알게 되었지만 자세히 몰랐습니다. 학과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의 추천으로 알게 된 후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프로그램명) 참여 경험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과정, 참여과정에 대한 노하우 등)

실제 면접관으로서 경험이 다수 있는 면접관을 초빙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3, 4학년을 기준으로 면접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회사를 정했을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의면접 전 실제 회사들에서 나올 법한 질문이 준비됩니다. (예.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1분 이내에 말해보시오. 둘이 동기인데 옆 지원자보다 내가 나은 점을 설명해보시오. 등등)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면접관 한 분과 일대일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드리고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모의면접 후 면접 답변 및 태도에 대한 feedback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복장, 얼굴 표정, 태도(손짓, 눈 깜박임 등), 보이스(톤) 및 화법(말투), 인사예절(진실, 성실성), 답변 능력(내용), 순발력(재치), 영어 구사능력, 기타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에 맞춰 면접도 진행해주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점은 면접 복장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의 경우 앞선 전공 수업 때문에 면접에 대비하여 준비하지 못한 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었을 때 지적받은 부분의 경우 복장은 casual 해서 면접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상 질문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1분 내외로 대답해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영어영문학과 특성상 영어를 무조건 잘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인문계열이나 특성화된 학과보다는 더 잘해야 되지 않

졌나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의 경우 3, 4학년들을 기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비교적 일정 부분에서 여유가 있을 테니 다른 학부생들의 경우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프로그램명)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및 성과

대학생활을 하면서 취업이나 면접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려니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았고 교수님들의 면담을 통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첨삭 받았습니 다. 하지만 이력서에 적힌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나 역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준비보다는 실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고 경험이 있었던 직무를 자기소개서에서도 첨삭해주셨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형식과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중에 준비해야 할 내용과 졸업 후에 대한 계획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1년 남짓 남은 학교생활을 막연하게 보내지 않고 제 목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많이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면접관은 각 학우들마다 각자에게 맞는 질문들을 통해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준비가 미숙했었던 상태에서도 저의 태도, 이력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칭찬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면접 분위기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4.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보통 학부생들의 경우 학교 프로그램(예를 들어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3, 4학년들의 경우 취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과 다른 학부생들의 추천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의 경우 개개인의 일정들도 있고 홍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자주 확인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돕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결대학교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홍보를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결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의 경우 약 5,500명, 성결대학교 페이지의 경우 3,000명이 좋아합니다. 이 뜻은 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생들의 관심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과마다 활성화되어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홍보를 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신되는 일반 메시지들은 학부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한 주변 학부생들의 반응은 보통 스팸으로 생각하거나 보자마자 읽지 않고 지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과에서 운영되는 각 학년마다 카카오톡 단체 메시징 방이 있습니다. 현재 영어영문학과 4학년 메시징 방은 약 40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카카오톡의 장점은 편리함입니다. 편리함을 앞세워 각각의 과마다 카카오톡방을 활성화시켜 프로그램의 홍보를 돕는다면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의 홍보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프로그램명)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면접에 대해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면접에 대비하는 학원에 가게 되면 비용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취업에 집중하다 보니 제공되는 준비에 대한 quality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다수 경험이 있는 면접관 분들의 초빙으로 실제 면접처럼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각각 학우들마다 첨삭하여주시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태도에 대한 feedback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곧 면접이 있을 학우들이 있다면 ‘2019학년도 Job Plus (잡+) 모의면접 (영어영문학과)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